



# 심장이야기

제26호 2016년 05월

재활 · 희망 · 미래로의 동행

더 큰 내일의 행복을 위하여  
언제나 함께하는 곳!  
횡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 발행인 : 백영선 ● 발행처 : 횡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강원도 횡성군 횡성을 한우로 223) ● www.hsrehab.kr ● TEL : 033-345-7341~2 ● FAX : 033-345-7338

## 하늘을 날아 희망을 찾는 제주도 문화체험



우리 복지관에서는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2박3일) 복지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늘을 날아 희망을 찾는 제주도 문화체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복지관 이용자 중 제주도 여행 경험이 한 번도 없는 24명의 장애인분들과 자원봉사자 6명 인솔자 4명 등 총 34명의 인원이 참가하였습니다. 3월 30일 아침 일찍 복지관을 출발한 우리는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제주도에 도착하였고,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먹은 음식의 메뉴는 제주도의 토종 돼지고기를 삶아 만든 뚝배고기 정식이었습니다. 모두가 매우 맛있게 드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점심식사를 마친 우리는 수목원 테마파크로 이동하였으며 다양한 그림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마치 그림 속에 내가 있는 듯 입체적인 사진이 찍히게 되니 다들 신기해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공연단의 서커스 관람에서는 오토바이 묘기를 보면서 다들 조마조마해 하면서도 즐거워 하였고, 신기해 하였습니다.

둘쨋날, 대한민국 최남단에 위치한 마라도섬으로 향하는 여객선에 올랐습니다. 날씨가 흐려 여객선이 뜨지 않을까 걱정하였지만, 다행히 우리는 마라도로 향할 수

있었고, 작은섬 안에는 전교생이 1명이라는 조그만한 학교를 비롯해 파출소, 소방서, 교회 등 왠지 이곳에서는 볼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시설들이 있어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였습니다.

세쨋날, 30만평의 드넓은 꽃자왈 원시림을 기차로 체험하는 에코랜드 테마파크를 방문하였습니다. 조그마한 기차에 옹기종기 모여앉은 우리는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는 신기한 자연환경을 구경하며 서로 장난도 치고 노래도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일정을 마친 우리는 집에서 걱정하고 있을 가족들을 위해 두 손 가득 선물을 들고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집으로 돌아오는 차안에서 짧았던 2박 3일간의 여행 중 있었던 소중한 추억을 서로 공유하며 어느덧 가까운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행에 참여한 분들의 가슴속에 남은 아쉬움이 큰 만큼 이번 제주도 문화체험이 그분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되었을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에 참여한 장애인분들의 생애처음인 제주도 나들이가 좋은 추억과 행복한 시간으로 남아주길 바랍니다.

## "제4회 한마음 걷기대회"



올해 4회 짝을 맞이하는 한마음 걷기대회 행사는 메인 부스를 설치하고 엠프를 통하여 흥겨운 음악



이 흘러 나오는 가운데 이른 시간인데도 걷기대회에 참가할 학생들이 일찍부터 현장에 나타나 반갑게 인사하며 순조롭게 시작되었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내빈 분들도 속속 도착하였고, 관장님의 개회선언과 장학금(김민호, 서대범, 채효) 및 표창장이영숙(조영숙) 전달과 군수님의 격려사로 개회식을 마치고 4.4Km에 달하는 약 1시간가량의 걷기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걷기대회를 행하면서 스스로 장애인들의 어려움에 대한 생각의 시간을 가져보는 이번 걷기대회에는 약 540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였는데 초등학생의 부모님들이 많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차이원의 후원으로 점심으로 짜장밥을 제공 하였고, 적십자를 비롯하여 JY 등 여러 봉사 단체들이 지원을 해주셔서 행사가 큰 무리 없이 잘 진행 되었습니다. 올해는 체험부스를 좀 더 다양하게 준비하였고(face painting, 소방안전체험, 시각체험, 지체체험), 문화공연으로 장애인으로 구성된 태양난타팀(난타 공연, 싱어솔리스트)과 클라이맥스 Bbox 팀의 공연을 보면서 학생들의 열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화창한 날씨에 많은 학생들과 부모님들까지 참석하여 한마음 걷기대회는 청소년의 장애인식개선 캠페인으로서 점점 더 지역사회의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참석해 주신 학생여러분과 내빈 및 자원봉사자 분들께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 "부릉~ 부릉~" 이동세탁차가 도착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이불 등의 빨래는 큰 부담이고 힘에 부치다 보니 손을 대지 못하고 그냥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우리 복지관은 재가 장애인의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3월 16일 횡성군자원봉사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이동세탁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봄을 맞이하여 3월 23일 복지관 내 주차장에서 이동세탁차를 이용하여 재가 장애인 8가구를 대상으로 이불세탁을 실시하였습니다. 겨우내

묵어 있던 먼지들을 시원한 물줄기로 씻어내고 따뜻한 봄 햇살을 받아 뽕뽕송송한 이불로 거듭났습니다. 세탁된 이불을 전달할 때에는 몸이 불편하여 겨울 이불빨래는 엄두도 못 내고 있었는데 세탁해서 가져다주니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동세탁으로 가정내 위생환경이 조금이라도 개선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이동차량세탁은 매월 3째 주 수요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 “찰칵, 찰칵, 추억을 담는 사진기”

4월 5일, 공간면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을 초대해 추억을 남기는 가족사진 지원을 진행하였습니다. 부부와 시동생이 사이좋게 지내지만 가족사진이 없었던 아쉬움을 한 자원봉사자의 협조로 시원하게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소풍가는 아이처럼 설렌 마음으로 옷을 맞추고 간 스튜디오는 아기자기한 소품이 가득한 이국적인 곳이었고, 그 안에서 기대감 가득히 쳐다보는 가족의 눈빛이 친진난만하여 보는 사람의 입가에 미소를 번지게 하였습니다. 밝은 조명, 커다란 카메라, 어색함이 떠도는 스튜디오 안에서 자연스러운 사진을 찍기 위해 미소를 유도하는 스튜디오 사장님의 노력 덕분에 즐겁게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촬영 종료 후 더 웃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몇 일 뒤 받은 액자를 보며 참 잘 나왔다고 하는 부부의 미소에서 고마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액자 후원 및 촬영 재능기부를 해 주신 모모스튜디오 한희성 사장님께 감사 말씀 전합니다.



## 원거리의 이용자를 찾아서....



3월 22일 안흥면 소사 2리 마을회관에서 “원거리 이용자를 찾아 이웃과 함께하는 이동복지관”을 실시하였습니다. 황성에는 약 3,500명에 달하는 등록장애인분들이 계시나 농촌지역의 특수성으로 9개 읍·면에 분포되어 있는 장애인분들이 우리복지관을 모두 이용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복지관에서는 연 8회에 걸쳐 아직 장애인복지관

에 대해 모르고 계시는 분들 및 복지관 이용이 가능한 대상자발굴을 위해 원거리 장애인분들을 직접 찾아가 작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이동복지관에는 강릉원주대 간호학과에서 기초건강관리, 가위손사랑 이미용봉사단에서는 이미용봉사를, 황성보청기 사장님께서도 귀청소 및 청력검사를, 원주복지용구센터에서는 보조기구구비를, 그리고 복지관련 상담 등 작은 손길이지만 장애인분들을 위해 서비스할 수 있어 보람이 되었습니다. 소사1리-소사2리까지의 구석구석에 살고 계시는 장애인분들과 비장애어르신들까지 함께 모여 서로의 안부를 전하며 우리가 간넌 손길에 몇 번이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모습에서 순수함 그 자체를 느끼게 되었고, 앞으로도 교통이 불편한 곳의 장애인분들을 찾아가 복지관을 알리고, 대상자를 발굴하여 더 많은 복지서비스가 전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산따라 물따라 가고픈 나들이 길”

산바람 꽃바람이 내게 손짓하는 4월의 푸른 산천은 황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활동보조인 선생님들 나들이 길에 기쁨을 준다. 10시 30분경 봉화군 분천역에 도착, 협곡 열차를 타고 철암 단광 역사촌에 도착한 시간대는 11시경... 석탄가루 분진에 세례 받은 나무는 검게 물들어져 있고 그 가지에 꽃잎은 열매를 맺는다.

태백시 탄광촌에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60년대부터 광부들의 애환이 담겨진 전한 삶의 모습을 느껴볼 수 있는 곳이 있으니 이곳이 탄광 역사촌 박물관이다. 까치발 건물을 그대로 활용 그 당시의 삶을 조명한 생활과 박물관 아트하우스가 있다.

이들 삶의 좌표는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광부라는 두 이름을 갖고 빨아도 안 빨리는 붓 같은 복장을 입고 삶을 장식하는 매일의 일상이 잘 그려져 있다.

어느새 정오 오찬을 하고 황지연못에 맑은 샘물을 보고 차에 올라 한반도 자연경관 지형을 보고 차에 오른 담당 선생님의 작별의 인사 말씀에 출발한 곳에 가히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복지관의 소속감을 가지고 업무적인 섭섭한 언행에 양해를 구하며 모두를 잊어버려 자며 미소 짓는 얼굴의 인사 말씀은 잊혀 질 것 같지가 않다.

- 황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활동보조인 최용실 선생님의 나들이 감상문입니다. -



## “오늘은 외식하는 날”

3월 25일(금), 4월 15일(금) 2회에 걸쳐 재가복지장애인을 대상으로 외식지원이 있었습니다. 3월 25일은 향토추어탕(대표:박우경)에서 황성읍에 거주하고 계시는 장애인에게 맛있는 추어탕을 대접해 주셨으며 4월 15일은 함발식당(대표:김남규)에서 청일·갑천면에 거주하고 계시는 장애인들에게 불고기백반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신체적 또는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외식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장애인들에게 외식은 맛있는 음식과 함께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값진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로 반갑게 인사를 주고받으며 안부를 묻고 음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속에서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아끼지 않고 푸짐하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주신 향토추어탕, 함발식당 대표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향토추어탕



함발식당



직원동정

축하드립니다!

2016년 장애인복지 관계관 연례회

2016년 장애인복지 관계관 연례회

2016년 장애인복지 관계관 연례회

2016년 장애인복지 관계관 연례회

2016년 장애인복지 관계관 연례회

2016년 장애인복지 관계관 연례회

2016년 장애인복지 관계관 연례회

2016년 장애인복지 관계관 연례회

2016년 장애인복지 관계관 연례회

2016년 장애인복지 관계관 연례회

2016년 장애인복지 관계관 연례회

2016년 장애인복지 관계관 연례회

2016년 장애인복지 관계관 연례회

2016년 장애인복지 관계관 연례회

2016년 장애인복지 관계관 연례회



## 장애 · 비장애자녀와의 소통



지난 4월 16일 제 36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준비한 부모교육은, 교육에 참석해 주신 부모님뿐만 아니라 교육을 준비한 우리 모두에게 많은 역운을 남겼습니다. 장애자녀와 비장애자녀의 교육과 의사소통방법을 주제로 진행된 교육은 강사님이 겪으셨던 일상의 일들이 주로 다루어졌습니다. 자신의 아픔이었던 일들을 극복하고 자녀의 행복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며 얻은 노하우를 고스란히 부모님들께 전달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이 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열성적으로 질문해 주시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부모님들을 위해 앞으로도 부모교육이 가정내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활용 및 도움이 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자라는 청소년들의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한 장애이해교육”

“장애인 이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부분은 “아니요.” 라고 답을 할 것입니다. 장애이해교육에 항상 “여러분들은 장애인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라는 첫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대답은 “불쌍하다”, “생활하는데 힘들어 보인다.” 등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이미지만 갖고 있다는 것이 보편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복지관에서는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교육의 취지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깨 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올해는 4월부터 11월 까지 9개월 동안 횡성관내 초,중,고 12학교 약 87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론과 장애체험(시각장애)을 통하여 장애인들이 얼마나 어렵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경험하고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이해 할 수 있게 하는 교육입니다. 이런 교육을 통하여 장애인 역시 우리와 함께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이라는 것을 인식 시키고, 동정이 아닌 장애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면서 서로에 대해서 알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삶으로 한걸음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편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부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래 봅니다.



### “이달의 주거환경개선”



3월 주거환경개선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부부가 생활하는 횡성을 재가장애인 가정이었습니다. 두 분이 생활하시는 고요한 공간에 20여명의 봉사자들이 모여, 시끌시끌하지만 정겨운 소리에 집주인 장00님은 즐거운 미소를 띄우시기도 하였습니다. 장00님은 55세의 경증장애인(시각5급)으로 본인 마음먹기에 따라 경제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으로 인해 세상과 담을 쌓고 오직 남편과 대화하며 외롭게 생활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자녀들은 모두 성장하여 독립하였고, 남편은 직장생활을 하고 계셔서 기초수급 대상자는 아니지만 도배, 장판과

같은 몫 돈을 들여야 하는 상황은 가계에 부담이 되는 가구였습니다. 10년 정도 도배, 장판교체를 못하고 계시다가 이번기회를 통해 전액 무료지원은 아니었지만(총 비용의 30%를 장00님께서 지불 하셨습니다)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어 매우 만족해 하셨습니다. 장00님이 세상 밖으로 조금씩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며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활기찬 봄과 함께 즐겁게 출발한 가족봉사단의 열정에도 감사드리며 하루였고 장00님의 행복한 미소가 기억에 남는 주거환경개선이었습니다.



### “봄바람 따라 강물 찾아 떠나는 기차여행”



‘개굴개굴’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나고, 바다 같이 푸르른 하늘은 어느덧 봄이라는 걸 일깨워 줍니다. 3월 15일(화) 따뜻하게 바뀐 날씨만큼 설레는 마음을 가득 안고, 재가 여성 장애인 8명을 초청하여 영주 무섬마을로 힐링을 위한 봄나들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나들이의 테마는 기차여행으로, 원주역에서 영주역까지 2시간동안 단순한 수단이 아닌 체험을 통한 추억으로 남기고자 기차를 타고 이동하였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삼겹살 찜을 먹고 도착한 무섬마을은 한적하고 여유로운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처음 와나무다리를 건너려고 하던 마음과는 달리 몇 발자국 가지 못하고 뒤 돌아서는 분들이 많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너도 나도 담고 싶은지 사진을 찍어달라던 장애인분들의 미소가 봄 날씨 마냥 포근하여, 보는 이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에 피어나는 웃음꽃처럼 다들 행복해 보였던 여행이었습니다.



## 제36회 장애인의 날 기념 - 횡성교육지원청 장애인식개선 공모전 수상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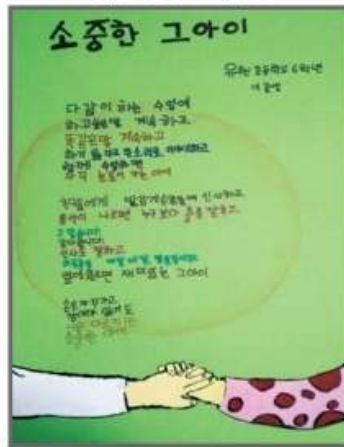
초등부 최우수상『함께 걸음』  
횡성초등학교 이수빈



중고등부 최우수상『꽃을 피우고 싶어요』  
횡성고등학교 유희한



초등부 최우수상『소중한 그 아이』  
유현초등학교 이준영



중고등부 최우수상『내 손을 잡아』  
횡성고등학교 김태현



## 2016년 3~4월 후원 및 자원봉사자 현황

### 3월 ~ 4월 일반후원자

고미경, 고연섭, 고치용, 구승희, 권종순, 김경미, 김길환, 김나현, 김덕주, 김동교, 김동규, 김동표, 김무경, 김문희, 김미숙, 김미영, 김상구, 김성기, 김성오, 김수진, 김승태, 김시현, 김연옥, 김완수, 김원정, 김은숙, 김주영, 김준석, 김진숙, 김진우, 김창배, 김철환, 김필기, 김형옥, 김혜령, 김희자, 남기석, 남기호, 도승란, 류기철, 명필주, 문현숙, 박동선, 박병대, 박상우, 박제형, 박종우, 박진동, 박행문, 배윤희, 백영선, 병호돈, 서정원, 설경진, 손정옥, 송미숙, 송석구, 송주철, 송춘자, 신경순, 신구선, 신명균, 신비아, 신인섭, 안신영, 양명도, 양준식, 양진주, 엄선익, 오도형, 오상숙, 오연근, 오태환, 원동규, 원영국, 원종호, 원팔연, 유옥자, 유제호, 윤금순, 윤석운, 윤은숙, 이경미, 이계화, 이광모, 이기성, 이대균, 이돈희, 이득귀, 이명희, 이미경, 이병남, 이병환, 이병진, 이상진, 이성옥, 이술인, 이소희, 이연숙, 이영규, 이원미, 이원진, 이은숙, 이종현, 이종철, 이철영, 이필덕, 이호근, 장성구, 장유진, 장태중, 전미경, 전승권, 전현숙, 정미향, 정병정, 정운갑, 정윤석, 정혜영, 정호태, 조만희, 조병래, 조완경, 조원용, 조윤숙, 조인숙, 진광선, 진기영, 채수형, 최권식, 최규만, 최동섭, 최승연, 최승진, 최영실, 최정인, 최혜영, 하남신, 한규호, 한동순, 한만진, 한문희, 한송화, 한유리, 한창수, 함승희, 허만용, 허귀순, 홍기옥, 황영호, 정진, 정영, 해피빈, 강원전기, 강태원복지재단, 사람과환경, 선덕의료재단, 우리치과, (주)강원이앤씨, 한바이오, 호식이두마리치킨횡성점, 황소해장국

### 3월 ~ 4월 물품후원자

푸드뱅크, 빵굽는사람들, 대상에프엔에프, 강원샘물(주), 롯데리아, 한발식당, 롯데푸드, 서울에프엔비, 빙그레, 향토추어탕

### 3월 ~ 4월 자원봉사자

강성원, 고경옥, 고연순, 박혜련, 구분남, 김광수, 김남철, 김남호, 김다영, 김도연, 김동현, 김민수, 김민지, 김순옥, 김영숙, 김영순, 김영자, 김일권, 김지연, 김화선, 김희자, 나용비, 나인숙, 도유진, 마덕훈, 문기원, 문성주, 박민기, 박선숙, 박선자, 박선주, 박수영, 박수정, 박창현, 배경필, 배영희, 서소애, 서정호, 석민경, 송영미, 신다운, 신재혁, 심경훈, 안광래, 안연자, 양준식, 여동혁, 우금순, 우옥자, 원은혜, 이경숙, 이경자, 이길원, 이대철, 이동운, 이상순, 이성호, 이수민, 이순영, 이애숙, 이용진, 이인남, 이정림, 이정민, 이준화, 이혜연, 이희도, 임혜란, 장정희, 정영호, 정영훈, 정지호, 정호창, 조경민, 조미자, 조병래, 조영숙, 최연식, 최영희, 최윤철, 최자운, 한동순, 한정임, 한창수, 한현정, 함재령, 함재택, 허정미, 홍기복, 홍두기, 홍미강, 홍선자, 홍지명, 황석중, 남궁영석

※ 복지관 운영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후원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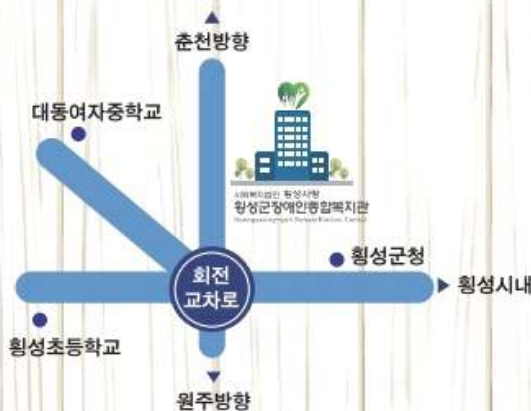
일반 후원 장애인들 위한 전체 복지사업  
결연 후원 후원자가 직접 장애인에게 생활비 및 물품 지원  
지정 후원 특별히 지정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원  
물품 후원 각종 물품 지원  
저금통 후원 제작된 저금통을 관내 유관기관 등에 비치

### 후원 계좌 안내

예금주 횡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농협 301-0019-4889-21 신협 131-014-321594  
농협(장학계좌) 301-0034-2613-11 우체국 200162-01-006284  
후원문의 전화 033) 345-7341~2(운영지원팀)

### 자원봉사 안내

참여대상 학생·학생 - 고등학교·대학생·주부·직장인, 전문가 등 장애인에게 따뜻한 나눔의 마음으로 다가가실 수 있는 개인·단체, 모두 가능합니다.  
참여방법 전화나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활동영역  
▶노력봉사: 관내 운동보조, 식사 및 주보조, 병자후고실, 계통학교(병학중) 직업훈련 작업보조, 특별활동 지도, 자료실 자료정리, 행정업무지원, 치료보조 등  
▶전문봉사: 양방 및 한방치료, 미용, 발바라지, 특별활동(미술, 음악, 글쓰기, 체육 등)  
▶방문봉사: 가사지원(일반적인 조리, 청소, 빨래 등), 방문미용서비스, 학습지원(학업지도, 컴퓨터지도) 모질기간 연중수시



사회복지법인 횡성사랑  
횡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Hoengseong-gun Rehabilitation Center

횡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역 내 모든 장애인과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관이용, 상담 및 접수예약은 전화나 내방하시면 됩니다.  
문의 033) 345-7341~2 시간 월-금 (09:30~17:30)